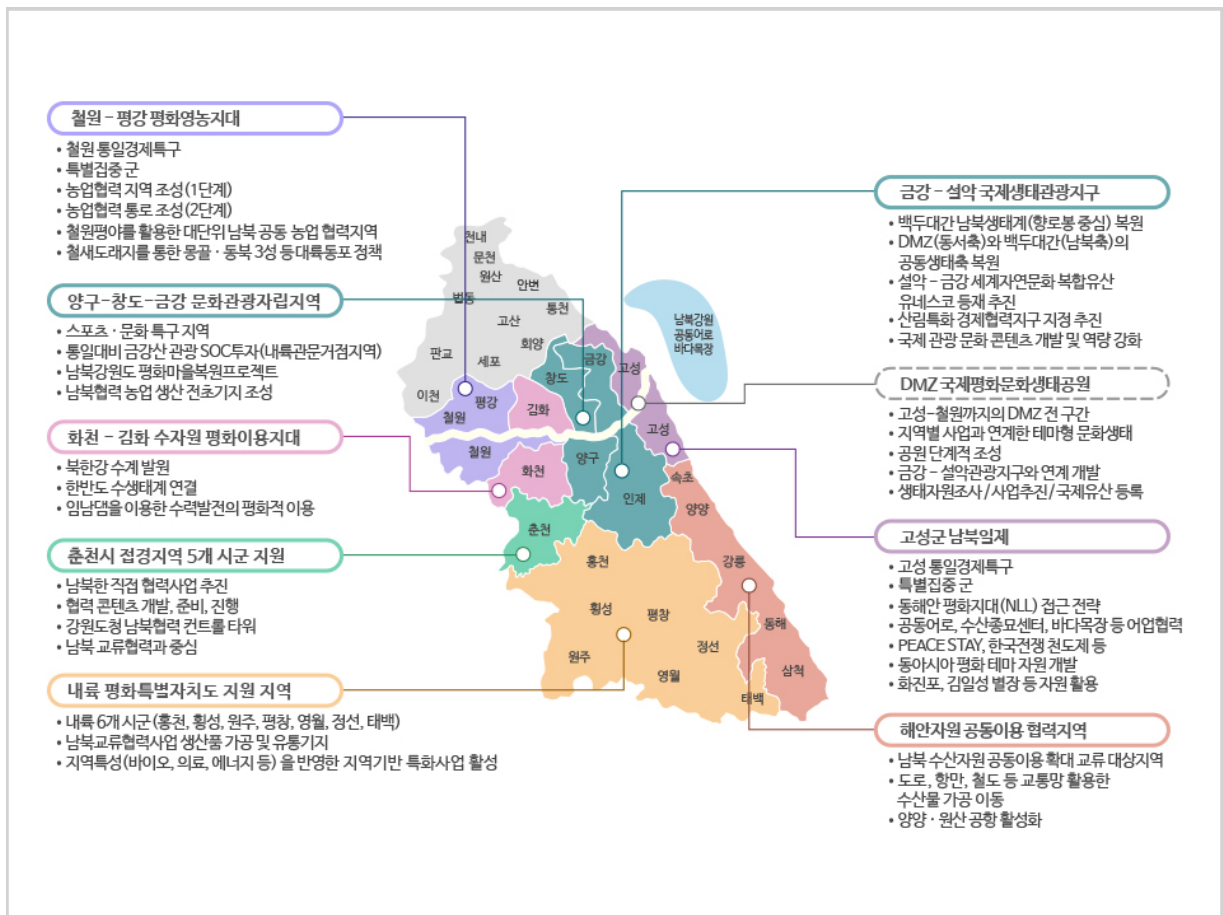


# 평화자치 공존하는 새로운 강원시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 박지은 | ☎ 승인 2021.01.26

##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남북관계 새전기 마련 예상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법안 공론화 위한 범도민회의 구성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미래비전

'평화'와 '자치' 두 축이 공존하는 새로운 강원시대가 열릴까?

그 열쇠는 바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유일 분단도인 강원도는 남북교류협력의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평화의 제도화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인 평화 가치를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으로 확대,전 세계 유일분단도만의 독자적인 평화와 자치를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도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1~2월 중 출범 시켜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제도화입법화에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BI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법안 공론화를 위한 범도민회의 구성

강원도는 1~2월 중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법안 공론화를 위한 범도민회의를 공식 발족할 계획이다. 범도민회의는 도내 주요 기관 및 단체를 중심으로 꾸려지며 각 부문별 대표성을 가진 20여명의 도민 대표가 참여한다. 이를 토대로 도는 2월 임시국회 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이뤄낼 계획이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제시한 강원도 1호 공약이다. 지난 18·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도민들에게 재차 약속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도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범도민회의를 중심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지난해 9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안은 정부 직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자치사무 위탁·조직·재정, 조례의 제·개정 및 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했다. 또 환동해경제자유특구를 지정, 특구 내 기업에 대한 세제·자금지원 및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평화 연계 조항은 삭제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2월 임시국회 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미래 비전

강원평화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도는 남북강원도 9개 시·26개 군을 특성화 지구로 설정,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정학적 위치와 특성화 산업을 통해 각 지구는 △철원-평강 평화영농지대 △양구-창도-금강 문화관광자립지역 △화천-김화 수자원 평화이용지대 △춘천시 접경지역 5개 시·군 지원 △내륙평화특별자치도 지원지역 △금강-설악 국제생태관광지구 △DMZ국제평화문화생태공원 △고성군 남북일제 △해안자원 공동이용협력지역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금강-설악 국제생태관광지구는 금강산-설악산을 중심으로 백두대간 남북생태계(향로봉 중심)복원을 비롯해 DMZ동서축과 백두대간 남북축의 공동생태축복원 등 남북강원도의 대표 산림협력 지구다. 설악-금강벨트를 세계자연문화 복합유산으로 조성하는 계획이다.

남북강원도 고성군은 남북일제 지구로 설정,고성 통일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이 이뤄진다.철원-평강 평화영농지대는 철원 통일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철원 평야를 활용한 대단위 남북공동농업협력이 가능하다.

화천-김화 수자원 평화이용지대는 한반도 수생태계를 연결,임남댐을 이용한 수력발전의 평화적 이용방안이 마련된다.

박지은 pje@kado.net



**박지은** pje@kado.net

---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